패션비즈니스 제21권 4호
—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
J. fash. bus. Vol. 21,
No. 4:21-33, Sept. 2017
https://doi.org/
10.12940/jfb.2017.21.4.21

중년 여성의 거들착용에 대한 유형분석

차수정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

Corresponding author
—
SuJoung Cha
Tel : +82-43-299-8753
Fax : +82-43-299-8750
E-mail: carollain@seowon.ac.kr

Type Analysis of Middle-age Women Wearing Girdles

Su Joung Cha
Dept. Fashion & Clothing, Seowon University, Korea

Keywords

girdle, middle-age women, wearing effect wearing type, Q method
거들, 중년기 여성, 착용효과, 착용유형, Q방법론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ttitude and effect of middle-age women on wearing girdles. Through this examination, we investigated types of girdles worn by middle-age women and compared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among types. By identifying middle-age women's need to wear girdles, this study enables effective development of girdles for middle-age women. Middle-age women's types of wearing girdl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ree types of women wearing girdles: hate type, wearing preference type and inconvenience acceptance type. The hate type woman is frustrated with wearing a girdle because it impedes blood circulation, digestion, and causes fatigue. The wearing preference type woman wears a girdle to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self-confidence and thinks that wearing a girdle pushes the abdomen and supports the hip (hip-up effect). Women strongly agreed that body shape is made beautiful and the silhouette of the lower body is made beautiful by wearing a girdle. The inconvenience acceptance type of woman thinks it is inconvenient to wear a girdle, but nevertheless is satisfied with wearing a girdle. Based on findings of this study, development of girdles considering body shapes of middle-age women, development of soft materials and improvements facilitating dressing methods are needed.

I. 서 론

현대인들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벼우며 몸통 둘레 치수가 작은 마른 체형의 여성을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생각한다(Douty & Brannon, 1984). 그러나 중년기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이 감소되고 지방이 축적되면서 체형의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하반신의 경우 복부의 지방증가로 인해 허리선의 구별이 어렵고 배가 나오며 엉덩이 둘레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Park, 2002). 이로 인해 체형을 커버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의류의 착용이 증가하게 된다. 파운데이션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여 몸의 균형을 이루어주며 겉옷의 실루엣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의 보정용 기초의류로서 정용(整容)효과를 목적으로 한다(Kim, 1992).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며 체형상의 결점을 감춰주므로 개인은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된다(Kaiser, 1990). 시대의 이상적 신체상에 따라 균형 잡힌 체형과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피트되는 의복 스타일이 유행함에 따라 파운데이션 의류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거들은 하반신 체형보정을 위해 착용하는 속옷으로 여성들은 하반신 실루엣을 매끄럽게 표현하고 아랫배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여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기대하며 거들을 착용한다(Song & Park, 1998). 거들은 밀착되는 의복으로 의복압이 높은 의류이다. 의복압이란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의복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심리적으로 구속감을 느끼고 불쾌할 뿐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준다(Jung & Ryu, 2002; Shim & Choi, 1994; Takasu, N. et al., 2001; Watanuki, S., 1994). 하지만 반면에 날씬해 보이는 효과와 몸매를 정돈에 주는 효과로 인해 착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거들착용에 대한 태도 및 착용효과에 대한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년기 여성용 거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중년기 정의 및 체형

1) 중년기의 정의

중년기는 인간발단단계의 전 과정에서 인생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주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중년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지고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양육기간이 짧아지면서 중년기는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Nam, 2009). 선행연구들은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중년기의 시기를 정의한다. 생활연령에 따라 Jaques(1965), Sheehy(1976), Gould(1976)는 35-45세, Erickson(1956), Levinson(1978)은 40-60세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Havighurst(1972)는 인생주기 6단계 중 제 5단계(30-60세)를 중년기로 보았고, Levinson(1986)은 40-59세를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40-59세의 20년간의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Kim, 1989; Park, 2015; Park, 2014; Shin et al., 2008; Hong et al., 2005). 의복구성분야에서 Park(1994)는 40-49세, Song(2000)은 45-59세, Park(2003), Yang(2004), Bum(2005)는 40-59세 여성을 중년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가족생활주기에서는 가족관계의 진화과정과 생활사건개념 등을 고려하여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로 막내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부터 은퇴하는 시기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Choi,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Size Korea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2005)에 의해 장년층으로 구분된 40-59세를 중년 여성으로 정하였다.

2) 중년 여성의 체형

중년 여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축적되면서 신체 체형의 변화가 일어난다. 신체적 균형의 파괴로 인해 뒤보다 앞쪽의 변화가 크며, 개인차가 커서 미혼여성과 비교해 볼 때 중년 이후의 변형이 현저히 나타난다. 특히, 하반신의 경우 복부의 지방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허리선의 구별이 어렵고 배가 나오며 엉덩이둘레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중년 여성의 골반부는 지방의 침착에 따라 변화가 크고, 대부분은 편평한 사람이 많으며 엉덩이부위는 돌출되거나 처지는 형태가 많다(Park, 2002).

신장을 포함한 높이부위와 길이부위는 감소하고 진동, 상완, 가슴, 허리, 배 등의 둘레항목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허리부위가 비대해지고 복부돌출 현상이 심해지며 위팔이 굵어지고 가슴과 엉덩이가 처지는 체형변화가 나타난다(Shim, 2000). Lee(1993)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이 감소하였으며,

길이 항목은 전반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둔부길이와 앞뒤밑위길이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어 엉덩이의 처짐과 복부의 돌출로 인한 길이 증가 현상을 알 수 있었다.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는 개인별로 변화의 폭이 넓고, 배둘레와 배두께, 엉덩이둘레와 엉덩이두께는 비만하거나 배가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와 배 부위는 중년 여성의 하반신에 있어 대표적인 비만부위로 45-54세에 현저한 증가현상을 보였다(Kim, 2003).

2. 거들

여성들의 균형 잡힌 건강한 체형과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만들기 위한 욕구는 파운데이션 의류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왔다. 거들은 대표적인 여성용 파운데이션 속옷이다(Calasibetta, 1986). 하반신의 체형을 보정해주는 용도로 착용하는 거들은 허리의 군살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하고 배를 압박해주어 복부의 실루엣을 평평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다(Cheon, 2005). 거들은 조여 주는 정도에 따라 소프트, 미디엄, 하드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리 길이나 허리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삼각거들(거들 팬티), 브리프, 세미 롱 거들, 롱 거들(허리선 기준 40cm), 풀 롱 거들(허리선 기준 45cm), 무릎 아래 거들, 발목 길이 거들, 하이웨이스트 거들로 나뉜다(Vivien, 2000). 거들의 착용목적은 생리 시 신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능도 있으나(Park & Han, 2001; Nam & Lee, 2002) 매끄럽고 날씬하게 보이게 하며(Apsan, 2006; Ewing, 2010),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하는(Shim, 1998) 체형 보정의 목적이 크다. 거들 착용 후 나타나는 신체치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엉덩이 돌출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높이가 상승하며 허리둘레, 복부둘레, 엉덩이둘레 치수가 작아진다고 하였다(Park & Kim, 2007). 또한, 엉덩이를 모아주고 위로 올려주는 효과와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는 효과, 그리고 처진 배를 올려주는 입체적 체형보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1; Choi & Kim, 1993; Park & Kim, 1990). 그러나 파운데이션의 경우 여성 몸의 실루엣을 보완하기 위해 의복압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의복압이 높으면 심리적으로도 구속감을 느끼고 불쾌할 뿐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Jung & Ryu, 2002; Shim & Choi, 1994; Takasu, et al., 2001; Watanuki, 1994). 의복압이 높은 거들 착용은 소화시간의 지연 및 배설량의 감소(Takasu, et al., 2001), 근육활동의 부담과 혈액 순환 장해(Shim & Choi, 1994; Jeong & Kim, 2006; Na & Kim, 2011; Kweon, S., 2012), 호흡, 맥박 등 생리적으로 나쁜 영향(Jung & Ryu, 2002; Mori, et al., 2002; Jeong & Kim, 2009)을 초래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론

Q방법론은 1935년 물리학자이면서 의사소통이론을 바탕으로 심리통계학자였던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이다. 그 후 Eysenck과 Thurston에 의해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다 Brown에 의해 완성된 연구방법이다(Lee, 2010). Q방법론이란 과학의 세계에서 간과되었거나 배제되었던 인간의 주관적 영역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심리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방법이며,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Ryu et al., 2014). Q방법론은 인간의 가치와 신념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Brown, 1980), 기존의 행태주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Kim, 2008). 행태주의 접근법이 추상화된 명제와 경험적 변수에서 연구가설을 검토하는 가설검증의 연구방법이라면, Q방법론은 가설을 발견하는 즉, 가설로 향하는 논리(reasoning to the hypothesis)이자 연구방법론이다(Kim, 2008).

Q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지각(Knowledge), 특성(Personality), 신념(Belief) 체계가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의 판단 내에 계층화된다. 또한, 태도는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들이 느끼는 환경적인 현상에 대한 의견으로부터 나온다. 즉, Q방법론에서 변인은 느낌, 의견, 선호, 감정, 이상, 취향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Brown, 1980). Q방법론은 '외부로부터의 설명'하는 방법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이해' 하는 접근 방법론으로 연구자의 구조적 정의가 아닌 답변자 스스로 그들의 의사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조작적 개념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진술문은 답변자의 자아참조적(self-referent)의견으로 구성된다. Q방법론의 적용은 기존문헌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평가기준에 대하여 Q진술문을 작성하고, 각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추출된 P표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구조와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진다(Kim, 2007). Q연구의 절차는 Q모집단의 구축, Q표본 도출, P표본 선정, Q소팅 및 자료처리, Q분석, 유형 해석의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Kim, 2011).

2. 연구설계

1) Q모집단 및 Q표본

Q모집단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이므로(Kim, 2008),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은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효과와 관련된 모든 의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표본의 선정은 Q모집단의 선정과 같이 성공적인 Q방법론 연구를 위하여 중요하며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Kim, 2008). Q표본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수집된 Q모집단의 50개의 진술문을 패션관련 대학 교수님과 전문가에게 먼저 제공하였다. 그 후, Q방법론에 적당한 수의 진술문으로 추출을 하였다. 착용효과, 착용감, 선호도 등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31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Table 1).

2) P표본

P표본이란 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을 뜻한다. Q방법론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는 목적이 아닌 응답자 개개인 내의 중요성 차이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small-sample doctrine)(Kim, 2008). Q방법론은 표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1인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40-59세)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년기 여성 중에서 연령, 출산경험, 혼인상태, 거들착용 경험 등의 기준에 따라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의 P샘플을 선정하였다.

Table 1. Q Statement Selected as a Sample

Q Sample			
1	I prefer wearing girdles.	17	The pressure of clothes causes the legs to swell.
2	When I wear girdle, my body becomes pretty.	18	I feel uncomfortable.
3	There is a hip-up effect.	19	No digestion.
4	Wearing girdle make the silhouette of the lower body beautifully.	20	Reduce amount of muscles.
5	Decrease in body size.	21	I feel stuffiness.
6	Tighten your thighs.	22	The hips are depressed and the volume is lost.
7	Press the abdomen.	23	The skin feels scratched.
8	Give confidence.	24	Heat is generated.
9	The lower body looks thinner.	25	No blood circulation.
10	It arranges the side.	26	The line becomes uneven.
11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27	Motion is inconvenient.
12	Look young.	28	It is hard to wear it.
13	The crotch tightens.	29	Warm.
14	The hems(leg) tightens.	30	It is difficult to breathe.
15	I have constipation.	31	There is discrepancy when exercising.
16	I feel tired.		

3) Q소팅

Q소팅은 Q표본이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되도록 강제분류방식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Q표본을 정상분포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주요인분석이 가능하게 만든다. 우선 P샘플들이 Q표본 31개를 모두 읽은 후 긍정과 중립, 그리고 부정의 세 무더기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 진술문도 분류하였다(Figure 1).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진술문은 중립의 영역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Q소팅이 끝난 이후에는 양극단에 위치한 긍정의 진술문 4개, 부정의 진술문 4개에 대해 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한 내용은 기록하여 분석결과에 활용하였다.

3. 통계 및 분석방법

Q분석을 위하여 쿼넬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활용하였고, 변환점수(computational score)를 사용하여 코딩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분석결과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 효과 유형은 다음의 Table 2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1'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3.27%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은 제2유형과 제3유형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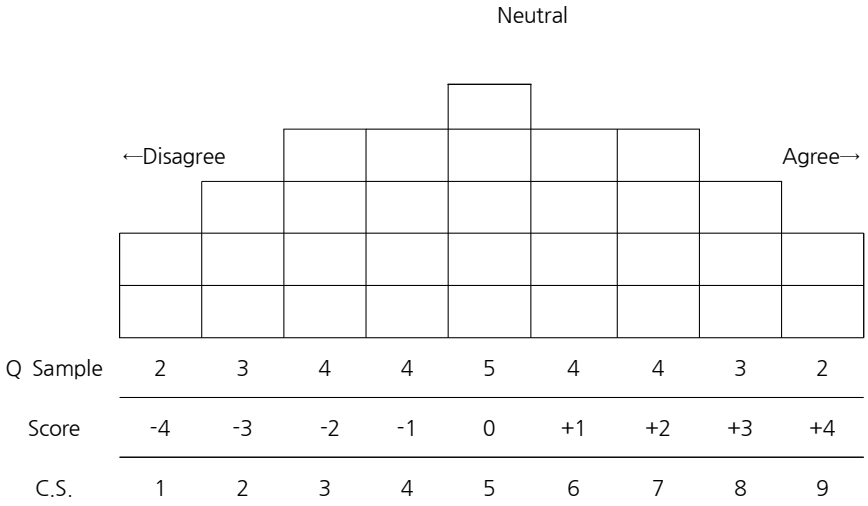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Table 2.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5.0284	3.7755	1.8507
Variance	0.2514	0.1888	0.0925
Cumulative variance	0.2514	0.4402	0.5327

제1유형은 9명, 제2유형은 8명, 제3유형은 3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경우 40대가 7명, 50대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은 대졸이 6명, 석사가 2명, 박사가 1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몸무게는 평균 56.9kg, 키는 161.4cm였으며, BMI(Body Mass Index)는 21.84로 정상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 중 5명은 기혼으로 자녀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4명은 미혼으로 자녀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모두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유형은 40대가 5명, 50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은 대졸이 6명, 박사가 2명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의 몸무게는 52.6kg, 키는 160.8cm였으며, BMI는 20.34로 정상체중이었다. 제2유형 중 기혼이 5명, 미혼이 3명으로 기혼은 자녀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미혼의 경우에는 자녀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모두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유형의 경우 40대가 2명, 50대가 1명으로 학력은 대졸이 2명, 석사가 1명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의 몸무게는 평균 61.0kg, 키는 157.0cm였으며, BMI는 24.75로 과체중이었다. 제3유형은 3명 모두 기혼이었으며, 자녀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수준은 모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2. Q 유형의 형성

1) 제1유형: 착용기피형

제1유형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유형의 중년 여성들은 모두 거들을 착용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인식에 동의

Table 3. Correlation of Three Factors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0.130	0.387
Type 2	0.130	1.000	0.069
Type 3	0.387	0.069	1.000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 of P Sample

Division	No.	Factor Loading	Age	Academy Ability	Weight (kg)	Height (cm)	Marriage	Birth	Economy
Type 1 (*n*=9)	2	1.6452	51	MA	55	160	single	no	low
	4	1.2575	45	BA	60	163	single	no	middle
	5	0.6365	45	BA	64	170	married	yes	middle
	8	0.4288	45	BA	55	163	married	yes	middle
	9	0.8707	41	MA	51	163	single	no	middle
	10	2.1077	47	Ph.D.	62	160	married	yes	middle
	13	1.5382	49	BA	52	160	married	yes	middle
	15	1.2711	55	BA	60	155	married	yes	middle
	19	0.9885	49	BA	53	159	single	no	middle
Type 2 (*n*=8)	3	1.2867	45	BA	50	159	married	yes	middle
	7	1.1382	47	BA	50	160	married	yes	middle
	11	1.9638	48	Ph.D.	56	163	married	yes	middle
	12	1.1604	45	Ph.D.	46	163	single	no	middle
	14	0.8725	47	BA	52	159	married	yes	middle
	16	1.1702	52	BA	56	160	single	no	middle
	18	1.0210	54	BA	55	162	single	no	middle
	20	1.1621	51	BA	56	160	married	yes	middle
Type 3 (*n*=3)	1	1.1874	51	BA	68	155	married	yes	middle
	6	1.2709	40	BA	65	160	married	yes	middle
	17	1.0812	49	MA	50	156	married	yes	middle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s of Three Factors (Z-score)

No.	Statement	Type1	Type2	Type3
1	I prefer wearing girdles.	-2.1	0.7	-1.5
2	When I wear girdle, my body becomes pretty.	0.3	1.9	0.0
3	There is a hip-up effect.	0.8	1.8	-1.3
4	Wearing girdle make the silhouette of the lower body beautifully.	0.5	1.3	-0.4
5	Decrease in body size.	-0.1	0.3	-1.9
6	Tighten your thighs.	0.2	0.2	-0.6
7	Press the abdomen.	1.3	2.2	1.1
8	Give confidence.	-1.1	1.1	-0.0
9	The lower body looks thinner.	0.4	0.5	-1.0
10	It arranges the side.	0.0	-0.2	0.1
11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1.8	1.4	1.5
12	Look young.	-1.0	-0.8	-1.1
13	The crotch tightens.	0.4	-1.2	0.2
14	The hems(leg) tightens.	0.2	-0.8	-0.6
15	I have constipation.	-0.7	-1.6	-1.0
16	I feel tired.	1.3	0.2	0.3
17	The pressure of clothes causes the legs to swell.	-0.1	-0.1	-1.4
18	I feel uncomfortable.	0.7	-1.5	-0.0
19	No digestion.	1.5	0.2	1.5
20	Reduce amount of muscles.	-1.7	-1.4	-1.0
21	I feel stuffiness.	1.8	-0.1	0.9
22	The hips are depressed and the volume is lost.	-1.3	-0.8	-0.7
23	The skin feels scratched.	-0.1	-0.4	0.8
24	Heat is generated.	-0.5	-0.3	1.3
25	No blood circulation.	1.5	-0.6	1.0
26	The line becomes uneven.	-0.9	-0.6	0.2
27	Motion is inconvenient.	0.2	-0.1	1.7
28	It is hard to wear it.	0.9	0.3	1.4
29	Warm.	-0.7	0.3	0.0
30	It is difficult to breathe.	0.4	-1.3	0.8
31	There is discrepancy when exercising.	-0.2	-0.6	-0.4

(No.21)하고 있는 유형이다. 제1유형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답답함이 생기고(No.21), 혈액순환이 안되며(No.25), 소화도 안되고(No.19), 피로감이 드는 것(No.16)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거들을 착용했을 때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No.7). 반면에 제1유형의 여성들은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No.8),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No.11). 또, 거들 착용을 선호하지 않는다(No.1). 엉덩이가 눌려져 볼륨이 없어진다(No.22)는 항목과 거들착용으로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항목에는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No.20)(Table 6).

요인가중치가 큰 10번(2.11), 2번(1.65), 13번(1.54), 15번(1.27) 응답자는 제1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0번 응답자는 “거들 착용으로 답답함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된다”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들의 압박감으로 인해 매우 답답함이 느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입고 벗기가 나쁘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거들 소재의 낮은 신축성으로 인해 입고 벗는 것이 불편하여 착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착용의 편이성이 개선된다면 거들을 착용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거들착용으로 “땀흡수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거들의 소재는 조여 주는 효과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면이 아닌 폴리소재로 제작되어 땀을 잘 흡수하지 않아 불쾌감을 주므로 여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번 응답자는 “거들 착용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되며, 혈액순환이 안된다”고 응답하여 거들 착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Table 6. Characteristic of Type 1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21. I feel stuffiness.	1.79
25. No blood circulation.	1.54
19. No digestion.	1.54
16. I feel tired.	1.31
7. Press the abdomen.	1.29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8. Give confidence.	-1.09
22. The hips are depressed and the volume is lost.	-1.29
20. Reduce amount of muscles.	-1.73
11.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1.75
1. I prefer wearing girdles.	-2.15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본인이 밀착되는 옷을 선호하지 않고 여유로움을 선호한다. 밀착되고 압박되는 착용감으로 소화가 안되고 혈액순환도 안된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그러나 거들착용이 “하반신을 날씬해 보이게 한다”고 응답하여 거들의 착용효과는 인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몰려있거나 쳐져 있는 살을 분산시켜 정리해줌으로써 라인을 예쁘게 해준다”고 응답하였다. 13번 응답자는 “거들 착용이 소화가 안되게 하고 피로감이 들며, 답답하여 혈액순환이 안된다”고 응답하여 거들 착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거들이 배와 허벅지를 눌러주고 조여서 소화가 안되고 혈액순환이 안된다. 또, 숨쉬기도 힘들며, 몸이 조여서 오랜 시간 입고 있으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15번 응답자는 “거들 착용으로 피로감과 불쾌감이 들며, 의복압으로 인해 다리가 붓고 소화가 안된다”고 응답하여 거들 착용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들을 착용하면 너무 조이고 답답해서 불쾌감이 든다”, “착용을 오래하면 몸도 무겁고 숨쉬기도 답답하여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 든다”, “다리를 조여주고 배를 눌러주니까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는 거 같다”, “거들을 착용하면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라 밥을 많이 못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2) 제2유형: 착용선호형

제2유형은 8명으로 구성되는데, 제2유형의 중년 여성들을 제1유형과는 매우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며(No.8), 자신감이 생긴다(No.11). 그리고 거들을 입음으로써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와(No.7) 엉덩이를 받쳐주고 올려주는 효과(Hip-up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였다(No.3). 거들 착용을 통해 몸매가 예뻐지고(No.2) 하반신 실루엣이 예쁘게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항목(No.4)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반면에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으로는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샅부분이 끼거나(No.13) 호흡이 곤란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o.30). 또, 불쾌감이 생기거나(No.18) 근육량 감소(No.20) 또는 변비(No.15)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Table 7).

요인가중치가 큰 11번(1.96), 3번(1.29), 12번(1.16) 응답자는 제2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1번 응답자는 “거들착용이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 “거들을 입으면 몸매가 예뻐진다”, “엉덩이를 받쳐주고 올려주는 효과(Hip-up효과)가 있다”,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하반신 실루엣을 예쁘게 보정해준다”, “자신감이 생긴다”고 응답하여 거들 착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거들을 착용하는 이유가 몸매를 예쁘게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몸매보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늘어난 뱃살, 처진 몸매 등을 당겨주고 조여 주어 치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처진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어 애플 힙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출산 후 늘어난 뱃살을 눌러주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여 거들

Table 7. Characteristic of Type 2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7. Press the abdomen.	2.19
2. When I wear girdle, my body becomes pretty.	1.89
3. There is a hip-up effect.	1.83
11.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1.37
4. Wearing girdle make the silhouette of the lower body beautifully.	1.26
8. Give confidence.	1.13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13. The crotch tightens.	-1.16
30. It is difficult to breathe.	-1.28
20. Reduce amount of muscles.	-1.41
18. I feel uncomfortable.	-1.53
15. I have constipation.	-1.62

착용의 효과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응답자도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 “거들을 입으면 몸매가 예뻐지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낀다”, “엉덩이를 받쳐주고 올려주는 효과(Hip-up효과)가 있다”고 하여 거들 착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들 착용을 하는 이유와도 같은 것으로 몸매를 예쁘게 보정해주고 복부를 눌러주고 엉덩이를 올려주어 볼륨감 있는 몸매로 만들어주어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여 거들의 효과 때문에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번 응답자는 “거들착용을 선호하고 거들착용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 몸매가 예뻐 보여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여 거들 착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착용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거들의 타미(Tummy) 부분이 복부를 눌러주어 체형을 보정해주므로 하반신 실루엣을 예쁘게 만들어 주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3) 제3유형: 불편수용형

제3유형의 중년 여성들은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착용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며 착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거들을 착용하면 열이 발생하고(No.24), 소화가 안되며(No.19) 입고 벗기가 불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No.28). 그러나 착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No.11),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No.7). 반면에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으로는 신체치수가 감소한다(No.5)는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들 착용을 선호한다(No.1), 의복압으로 인해 다리가 붓는다(No.17), 엉덩이를 받쳐주고 올려주는 효과(Hip-up효과)가 있다(No.3), 젊어 보인다(No.12), 근육량이 감소한다(No.20)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요인가중치가 큰 6번(1.27), 1번(1.19) 응답자는 제3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6번 응답자는 “입고 벗기가 나쁘다”, “호흡이 곤란하다”, “라인이 울퉁불퉁해진다”,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다리를 넣고 올릴 때 원단이 신축성이 강해서 불편하다”, “압박감으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다”, “Bone이 없는 부분은 눌러주지 않아서 라인이 울퉁불퉁해진다”, “몸을 압박하여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1번 응답자는 “거들을 입었을 때 몸매가 예뻐진다”,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거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여 불편함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형을 맞춰주어 몸매가 예뻐지고 살을 정리해주는 효과는 있다”고 하였으나 “움직임은 조임 때문에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들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거들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Characteristics of Type 3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7. Motion is inconvenient.	1.73
11.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1.51
19. No digestion.	1.50
28. It is hard to wear it.	1.36
24. Heat is generated.	1.35
7. Press the abdomen.	1.13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0. Reduce amount of muscles.	-1.01
12. Look young.	-1.15
3. There is a hip-up effect.	-1.32
17. The pressure of clothes causes the legs to swell.	-1.36
1. I prefer wearing girdles.	-1.55
5. Decrease in body size.	-1.89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거들착용에 대한 태도 및 착용효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들 사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중년기 여성에 대한 거들착용의 필요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년기 여성을 위한 거들 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양적 및 실험설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거들 착용 전후의 신체치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탐색하는 연구들로 보기 어렵다. 동시에 같은 중년기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매우 다양한 것임을 직관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중년기 여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주관성 연구를 활용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에 대해 나타내는 다양한 유형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의 형성과정과 주요 특징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거들 착용 유형은 착용기피형, 착용선호형, 불편수용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착용기피형은 거들을 착용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유형으로 혈액순환이 안되고 소화도 안되며, 피로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착용선호형은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거들을 입음으로써 복부를 눌러주는 효과와 엉덩이를 받쳐주고 올려주는 효과(Hip-up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거들 착용을 통해 몸매가 예뻐지고 하반신 실루엣을 예쁘게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불편수용형은 거들을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착용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며 착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기 여성은 하반신 체형의 변화에 따라 파운데이션 의류의 착용을 통해 체형을 커버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중년기 여성용 거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거들의 기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한 소재의 개발 및 입고 벗기 편하도록 탈착 방법의 개선을 통해 착용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년기 여성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의 거들착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비록 Q방법론이 소수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질적 연구이지만, 일반화의 가능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거들착용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통계적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Apsan, R. (2006). *The lingerie hand book.* New York: Workman Publishing.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Q Methodolog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Bum, S.(2005). *A study on knit-wear design for the complement of middle-aged women's fig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Calasibetta, C. M. (1986). *Essential terms of fashion.* New York: Fairchid Publications.

Choi, J. H. (2008).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collage technique on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Chungnam.

Choi, M. S., & Kim, O. J.(1993). A study of the foundation garment manufacturing for the well-balanced somatotype-With middle-age womenho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7*(2), 247-264.

Cheon, J. (2005). *Clothing merchandise for understanding fashion business.* Seoul: Kyomunsa. 136.

Douty, H. I.,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3*(2), 135.

Erickson, E. H.(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Ewing, E.(2010). *Fashion in underwea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Mineola.

Gould, J.(1976). The new man.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7*(2), 8-11.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 test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Hong, D. A. G., & Lee, N. J. (2005). A study on coping behavior in mid-life married women's crisi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5*(2), 227-237.

Jaques, E.(1965).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 46*(4), 502-514.

Jeong, J. R., & Kim, H. E. (2009). Effects of skin pressure by an all-in-one undergarment on core temperature and the secretion of urinary melatonin. *Biological Rhythm Research, 40*(4), 317-324.

Jung, M. S., & Ryu, D. H. (2002). The effect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knitted fabrics on the clothing pressure of foundation wea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1), 79-93.

Kaiser, S.(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an.

Kim, C.(1992). *A study on discontent factors about current foundation products*(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H. (2008). *Q methodology: Science philosoph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Kim, K.(2003). *A study on the basic slacks pattern responding to the lower body habitual feature of the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Kim, K. Y.(2011). *Applying Q methodology to analyze mobile advertising effects on smart device user segmen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 University, Seoul, Korea.

Kim, M. C.(1989). *Mid-life crisis and it's related variable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2007). Q methodology and social science. Seoul: Kumjung.

Kweon, S. A. (2012). The effect of the skinny pants on the physiological responses and subjective pressur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3), 567-576.

Lee, H. S. (2010). *A study on local and social workers' role perception in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zone plan: focused on Q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Jinju, Kyungnam.

Lee, J.(1993). *Research for the slacks basic pattern and the lower sizing system for lower garments according to lower body types of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Books.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6*(1), 197-222.

Na, Y. J., & Kim, Y. H. (2011). Changes in physiological responses by the pressure of non-elastic cors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3*(6), 943-951.

Nam, S. (2009). The effects of middle-aged married women's sexuality and work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6*(1), 197-222.

Nam, Y., & Lee, C. (2002). A study on feeling of wearing and clothing pressure of custom-made girdles. *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 39*(4), 503.

Mori, Y., Koika, E., & Tokura, H.(2002). Effects of pressure on the skin exerted by clothing on responses of urinary catecholamines and cortisol, heart rate and nocturnal urinary melatonin in human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 47*(1), 1-5.

Park, E. J. (2001). Effect of body shaping by wearing gird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3*(3), 235-240.

Park, E. K.(2015). *Effect of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on stress and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Park, E. S.(2014).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study of aging in middle-aged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ark, E., & Han, E. (2001). Investigation of girdle wearing of female college students. *Fashion Business, 5*(3), 49-61.

Park, J.(2002). *A study on the basic slacks patterns for middle-aged wome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lower-body shape*(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ark, J. E., & Kim, H. E.(2007). Body shape variations measurements with 3D scanner for wearing found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9(6), 651-657.

Park, S. (1994). *A study on slacks prototypes by analysis of lower body shape of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ark, S. (2003). *A study on the stretch fabric slacks pattern for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ark, Y. D., & Kim, H. E.(1990). Researc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earing girdle on the various physiological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1), 1-7.

Sheehy, G. (1976). *Passages.* New York: Dutton.

Ryu, B. H., Kim, Y. L., & Hwang, J. H.(2014). Research Articles: Wine Expers' subjectivities of Youngcheon MBA Red Wine: A Q Method. *Th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society, 38*(3), 213-233.

Shim, B. J., & Choi, S. H. (1994). Studies on garment restraint(Ⅳ)-Effect of slacks restraint on lower extrem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8*(3), 387-394.

Shim, H.(1998). *A study on adult women's foundation buy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Shim, J. (2000). *A study on somatotype classification and self-evaluation of the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Shin, H. C., & Sim, H. S.(2008).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middle-age women on their self-imag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omen Study, 75*, 93-133.

Song, M., & Park, S.(1998). *Functional Suit.* Seoul: Soohaksa.

Song, B.(2000).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pattern in the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al factor of slacks: for 45-59 aged middle wom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Takasu, N., Tsukamoto, M., Tokura, H., & Sone, Y. (2001). Effect of skin pressure by clothing on small

bowel transit time. *Journal of Physiological Anthropology and Aapplied Human Science, 20*(6), 327-331.

Watanuki, S. (1994). Improvements on a design of girdle by using cardiac output and pressure sensation. *The Annals of physiological Anthropology, 13*(4), 157-165.

Yang, H.(2004). *A study on the torso and sleeve patterns using stretch fabric-focused on the middle ag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May 1, 2017)
Revised (June 18, 2017)
Accepted (June 28, 2017)